

영화 OST ‘필름 콘서트’, 유행 편승인가 저변 확대인가

애니메이션 영화음악 콘서트 붐물 “감동 재소환” “편한 음악에 매몰” 의견 엇갈려...레퍼토리 구성 중요

요즘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영화 OST를 자주 들을 수 있다. ‘히사이시 조’부터 ‘신카이 마코토’까지 영화음악 거장들의 음악을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2000년대부터 쏟아진 조수미 등의 영화음악 신보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영화음악 콘서트는 종종 열려 왔으나, 요즘은 전국적 매진사태 연발로 그 기세부터 남다르다. 바야흐로 ‘필름 콘서트’ 시대인 것.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웃집 토토로’

필름 콘서트는 원작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하고, 영화를 매개로 관객에게 음악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를 상영하며 실시간으로 연주를 들려주거나,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발췌해 아카펠라를 곁들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같은 유행은 지브리·디즈니 등 애니메이션 영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만 하더라도 오는 16, 17일 대극장에서 지브리 vs 마블 OST 재즈 콘서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페스타’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어 4월 27일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가 펼쳐지며 28일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도 관객들을 만난다. 같은 장소에서 ‘지브리&히사이시조 디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6월 30일 열리는 콘서트도 이목을 끈다. 모두 애니메이션 필름의 원작 IP를 클래식과 접목한 영화음악 콘서트다. ACC도 ‘브런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부터 ‘어벤저스’, ‘라이언 킹’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음악을 매개로 관객들을 만났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 기부금 매칭을 통해 퓨전양상볼 볼람이 펼친 ‘한여름 밤의 영화음악 콘서트’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공연계 일각에서는 “신인이 빨리 무대에 데뷔하려면 ‘바흐 모음곡’ 같은 정통 클래식보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마녀배달부 키



히사이시 조 25주년 콘서트에서 히사이시 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문막’을 연주하는 모습. (지브리 영상 캡처)

키’ OST 등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클래식 공연 기획을 하며 필름 콘서트에 출연한 적 있는 공연기획자 겸 예술가 A씨는 “대중의 입맛을 따를지, 기획자의 의도대로 공연을 기획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며 “공모사업 통과, 우수 공연장 대관을 위해 우선 ‘유행’과 맞물린 영화음악 콘서트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서트에 가보면 ‘인생의 회전문막’ 나 ‘바다가 보이는 마을’ 등 매년 들던 유명곡들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영화음악의 유행과 맞물려 안착한 기존 IP에 편승하려는 ‘유사 포맷의 남발’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허효정 교수는 “필름 콘서트는 청중의 자원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광주 음악문화가 ‘그저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작품’만으로 편승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작품은 무대에서 한 순간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공연이 축적돼 한 지역의 문화적 경향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초청·대관 공연이라도 유행의 성패를 떠난 레퍼토리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영화음악(OST)은 악보(Score)가 영상을 아

래에서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언더스코어’라고 불린다. 그러나 유행에만 따르는 기획이 남발된다면, 영화와 음악 모두 흥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름 콘서트 자체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생명력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연계·기관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이 우세한 편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영화감상의 경험’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김동률의 곡 ‘기억의 습작’이 ‘건축학 개론’에 삽입돼 작품에 빛을 더한 것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적 유행에 따라 최근에는 필름 콘서트가 ‘관객 점유율’이 높고 흥행하는 편”이라며 “기획자들이 공연 성공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 같은 포맷으로 콘서트를 제작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화계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영화계 전반이 침체성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필름 콘서트를 통해서나마 ‘음악’과 ‘영화’ 모두에 대중의 관심이 환기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티브’나 ‘소재’가 유사한 작품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기시감을 지울 수 없다. 또 영화가 단순히 흥행몰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기획에 앞서 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이해, 이를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레이션의 편성 등이 선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법정스님은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스승”

정찬주 소설가 산문집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펴내

“나에게 법정스님이 왜 마지막 법정스님이시냐 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썬터사에 입사한 뒤 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의 원고 편집 담당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지 6년간에 스님으로부터 계교와 법명을 받고 재가제자가 되었습니다.”



보성 출신 정찬주(사진) 소설가에게 법정스님은 마지막 스승이다. 정 작가에게는 세 명의 스승이 있다. 첫 번째는 사춘기 방황을 멈추게 해주신 자신의 아버지, 두 번째 스승은 대학시절 곁꿨던 문학잡지를 일깨워준 동국대 흥기삼 전 총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이자 마지막 스승이 바로 법정스님이다.

정 작가가 이번에 산문집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여백)을 펴냈다.

그는 산문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스님과 개인적인 인연과 사연을 가능한 모두 모아야겠다는 필요를 느껴서 발간하게 됐다”며 “책으로 묶어 두지 않으면 기억에 한계가 있어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물론 작가는 법정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스승이기 앞서 “우리시대, 우리 모두의 스승이기도 하다”고 전제한다.

책에 실린 원고는 신문사나 잡지사 청탁을 받고 썼던 글들과 절판되다시피 한 책에서 가져온 글들도 있다.

“맑고 향기로운 스님”이라는 제목이 붙은 1부에서는 스님의 염서와 편지, 유묵에 붙인 긴 사연들로 채워져 있다. 이번 책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글들로 “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는 뜻에서 수록하게 됐다.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제2부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이다. 특히 1장 ‘불일암은 법정스님’은 불일암과 연관된 추억, 사연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 작가는 “불일암은 법정스님께서 가

장 치열하게 정진했던 공간이고, 푸른 산빛 같은 자연주의적 칼럼을 활발하게 발표해 어둔 세상을 밝혔던 곳”이라고 회고한다.

2부 2장은 아난다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뜻의 여시아문(如是我聞) 같은 목격담의 글이다. 정 작가에 따르면 자신이 듣고 보았던 스님의 말씀과 당시 실제상황을 복기했다.

3부 ‘법정스님처럼’은 작가가 산방인 이불재에서 경험하는 사계의 글을 모았다. 정 작가는 “지나간 삶의 자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층처럼 켜켜이 쌓이는 게 아닐까 싶다”며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를 성장하게 한 경험들이 제법 있다. 독자들에게도 삶에 도움을 주는 훈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산문집을 발간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누군가의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듯 노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며 “법정스님의 가르침 한줌이 신산한 삶으로 힘겨운 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인 된다면 나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작가는 장편 ‘산은 산 물은 물’을 비롯해 ‘암자로 가는 길’ 등 1백여 권의 소설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동국문학상, 류주현문학상, 유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깨비와 삼살이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국립남도국악원 16일 ‘Live 국악 뮤지컬- 깨비 친구 삼살이’

단절된 세상, 서로 경계하고 선을 그으며 웃음마저 잃어가는 시대에 ‘공존’의 가치를 환기하는 공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이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일환으로 선보이는 ‘Live 국악 뮤지컬- 깨비 친구 삼살이’가 바로 그것. 오는 16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펼쳐지며 ‘아트컴퍼니 행복자’가 출연할 예정이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도심 속, 외로운 삼살이(임혁빈 분)가 길을 걷는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은 삼살이를 호랑이 담배 피우던 먼 옛날로 데려가 버린다. 어느 한 폐가에서 깨어난 삼살이는 흑부리 할아버지(이병권)를 만나 재미난 이야기보따리를 함께 풀어낸다.

그런데 흑부리 할아버지가 숲을 팔러 간 사이에 장난을 좋아하는 아기 도깨비들이 물건에서 튀어나와, 삼살이와 마주치고 만다. 달라도 너무 다른 도깨비와 삼살이... 과연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자루괴물은 정지호 배우, 작은 도깨비 콩콩 역은 백은지가 맡는다. 김애린(풀격이), 차단비(샤샤) 등이 출연하며 이광용의 타악 연주도 곁들여진다.



아트컴퍼니 단원들이 ‘깨비 친구 삼살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악원 정순영 담당자는 “삼살이가 자신과 상극인 도깨비를 만나고 함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겨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며 “도깨비와 삼살이라는 은유를 통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공존’의 가치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봄, 한국전통문화 자수꽃 피다’ 12일~4월 30일 비움박물관

봄과 며칠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다. 자연과 꽃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립에서도 봄이 느껴진다.

전통자수를 모티브로 봄을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의 봄 기획전시 ‘철부지 문명의 봄 한국전통문화 자수꽃 피다’전. 개막은 오는 12일이며 개막 당일엔 전 전시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펼쳐지는 전시는 명화 못지않은 품위와 자태를 자랑하는 자수를 만나는 시간이다. 형형색색의 화사한 전통자수는 자연이 주는 향기와는 다른 고아한 향기를 선사한다. 우리 옛 어머니들과 여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인고의 향은 보면 볼수록 그윽하다.

혹자는 우리 옛 어머니들과 연인들을 가리켜 “진정한 예술가”라고 칭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공간에 갇혀 홀로 자수라는 인고의 꽃



비움박물관에서 만나는 ‘전통자수’

을 피워낸 정성과 솜씨가 아티스트에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자수는 솜씨와 땀, 마음씨를 담고 있다.

소박한 것은 소박한대로, 화려한 것은 화려한대로 제각각 멋과미를 품은 자수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로 대

변되는 오늘날의 트렌드와는 격이 다른 아우라를 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전통 생활용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